

2019년 2/4분기 고양시 기업경기전망(BSI)

2019. 04



- I. 조사개요 / 1
 - ※ 분기별 고양시 경제 이슈 관련 조사 / 2
- II. 조사결과(종합전망) / 3
- III. 제조업 경기 전망 / 6
- IV. 유통업(도·소매업) 경기 전망 / 6
- V. 부문별 전망 / 7
- VI. 대내외적 경영여건 및 경제현안 인식 / 8
 - ※. 첨부 / 13

1. 조사 개요

조사표 작성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회원사 CEO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조사 목적

- 고양지역 제조·도소매업종의 2019년 1/4분기 실적과 2019년 2/4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개별 회원기업의 경영계획 및 고양시의 경기대책, 경제정책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 대상

- 고양상공회의소 회원사 가운데 고양시 내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체를 규모별 600개 업체로 선별하여 조사표본업체로 삼음.
※ 조사표 600부 배부 가운데 회수 총 145부 (회수율 24%)

■ 조사 기간

- 2019년 2월 25일(월) ~ 3월 15일(금) (휴일 제외 14일간)

■ 조사 방법

- 조사표 FAX/E-mail 발송, 온라인 설문조사 및 직원의 방문조사 병행

■ 조사 사항

- 체감경기, 매출(내수·수출), 영업이익(내수·수출), 자금 조달여건 관련 6개 항목의 경기실적 추정 및 전망
- 국내 경제성장률 관련 1개 항목, 투자여건·계획 관련 4개 항목, 경제현안 관련 2개 항목, 경제주체 관련 1개 항목, 고양시 경제관련 1개 항목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작성

- 조상대상기간의 실적과 전망을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증가, 상승, 부족, 하락), 악화(감소, 하락, 과다, 상승), 불변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
- 기업경기실사지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작성됨.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 \frac{\text{호전 표시 업체 수} - \text{악화 표시 업체 수}}{\text{총 유효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BSI = Business Survey Index 0 ≤ BSI ≤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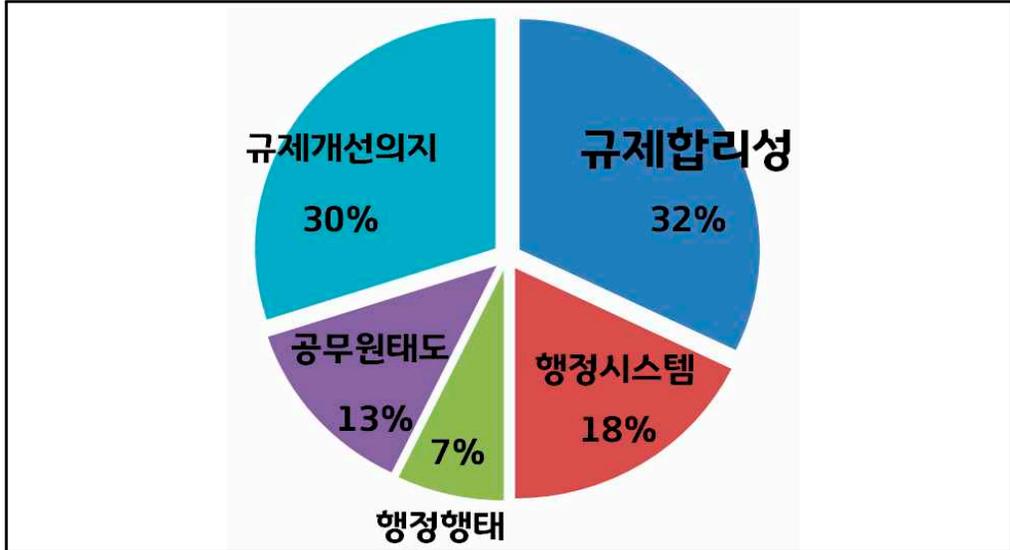
- BSI의 기준치는 100이 되며, 100 이상일 때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

※ 분기별 고양시 경제 이슈 관련 조사

[19년도 2분기]

「고양시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행정 분야」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기업체감도 부문 100위〉



[19년도 1분기] 「일자리 넘치는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우선 추진되어야 할 일자리 정책」

계층별(청년, 여성,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31%)	통합일자리 지원서비스 마련 (23%)	4차 산업 및 남북교류 중심도시 지향 (23%)
	공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18%)	기타 (5%)

[18년도 4분기] 「고양시 민선7기의 '5대 대표공약' 가운데 중점 추진되어야 할 정책」

평화경제특별시 도약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47%)	민관협치체계 및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31%)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 (10%)
	파리기후 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 (7%)	지역화폐 '고양페이' 도입 (5%)

[18년도 3분기] ①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10점 만점>」

평균점수 : 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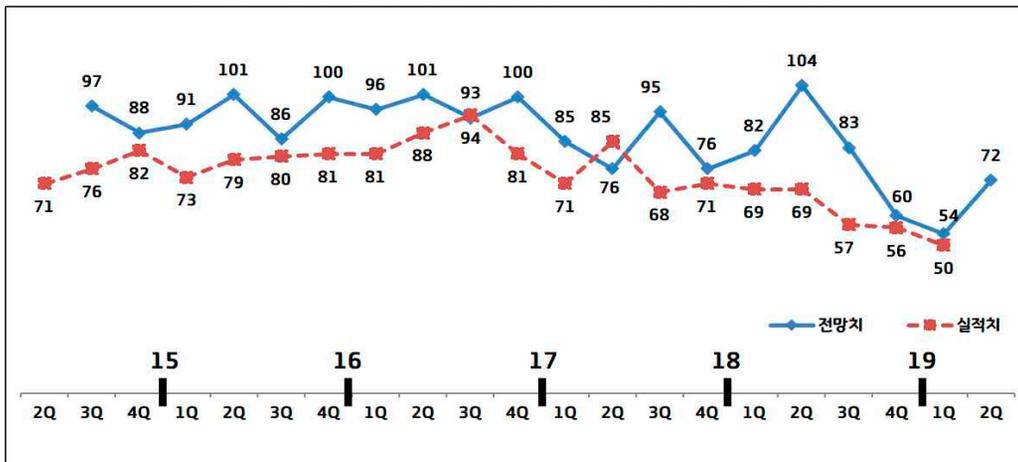
[18년도 3분기] ②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고양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

고양시 대외브랜드 제고 (40%)	지역 화훼산업 발전 (37%)	일자리창출 효과 (10%)
	고양시 국제교류 증대 (7%)	판로개척을 통한 수출증대(6%)

II. 조사 결과 (종합 전망)

- 「2019년 2/4분기 고양시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19년 2/4분기 고양시 BSI(기업경기전망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19년 1분기(54)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72'를 기록하였지만 향후 경기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부문별로 제조업에서 '77', 도·소매업에서 '65'를 나타내며 전 분기 대비 제조업에서는 19포인트, 도·소매업에서는 17포인트 상승을 각각 기록함.

〈그림〉 고양시 기업경기 실적추정 및 전망 지수 추이 (종합지수)



- 고양시 기업경기가 계절적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3분기 만에 '70'대선을 회복함. 18년 4분기(60)와 19년 1분기(54)를 거치며 어느 정도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기준치인 '100'에는 한참 미치지 못함.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경기 흐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유럽연합(EU)의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등 여전히 높은 대외리스크에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묻는 질문에서 절반가량의 기업이 '올해 전망치(2.6~2.7%)보다 하회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것 역시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임. '올해 전망치(2.6~2.7%)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32% 가량으로, 조사에 응답한 기업 대부분이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 등 세계 무역 불확실성 확대 조짐이 강한 대외리스크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전 분기(58)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77'을 기록하였고 도·소매업 경기전망지수는 전 분기(48)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65'를 기록하며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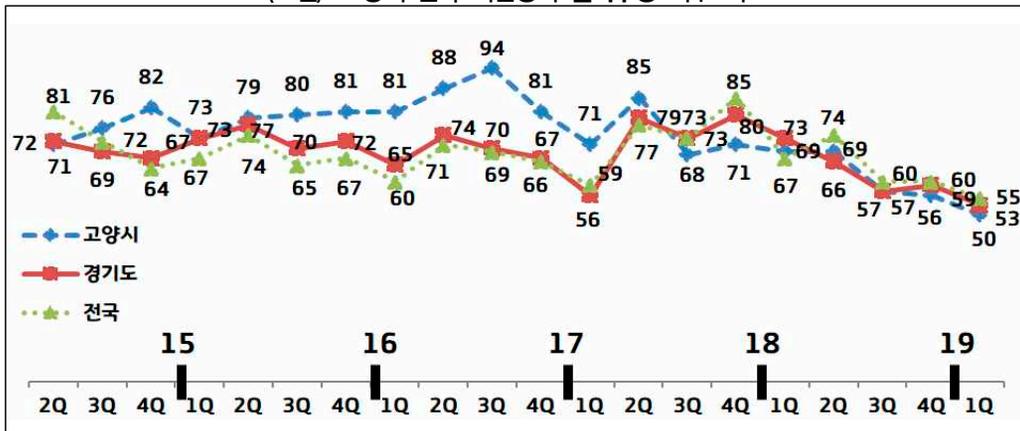
업과 도·소매업 두 부문 모두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기준치 '100'을 하회하며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전망함. 계절적 요인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종의 기대감이 두 업종 모두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년 2분기 실적전망지수로 나타난 '72'는 고양시 기업경기전망조사가 실시된 이래 19년 1분기(종합지수 54)와 18년 4분기(종합지수 60)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낮은 기록임.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 못한 상황임. 조사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는 “내수 실물 경제 자체로만 보면 IMF(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으로 하향하고 있다고 판단될 만큼 힘들다”라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냄. 19년 1분기 실적추정지수가 '50'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이와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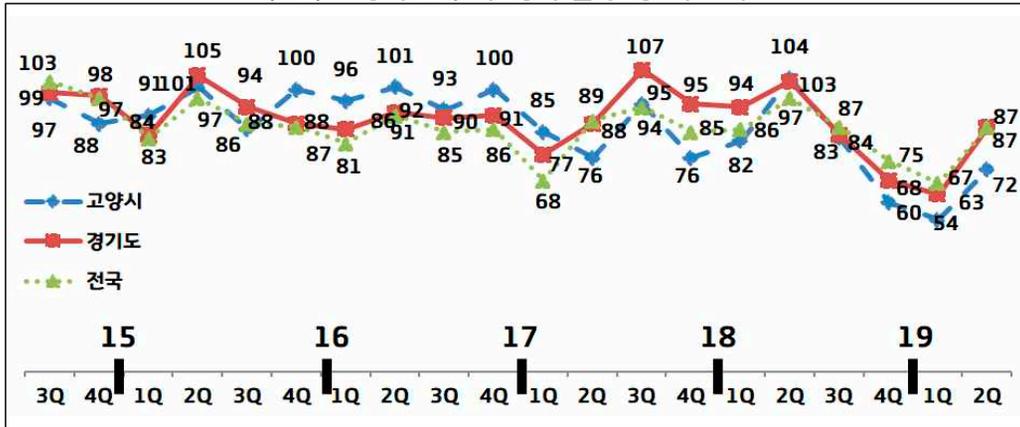
한편 18년 2분기 이후 지난 3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던 실적전망지수가 다시금 큰 폭의 상승곡선을 그리게 된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는 대목임. 다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지수로는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는 점과 경기부진 관련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감, 신학기 도래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반영된 것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 경기 부양정책을 통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실물 경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기도지수 및 전국지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1분기 실적추정지수는 경기도지수(53)보다는 3포인트 낮고 전국지수(55) 대비해서는 5포인트 낮은 '50'으로 나타남. 19년 2분기 실적전망지수의 경우 경기도지수 및 전국지수(87) 대비 12포인트 낮게 나타남. 전국적으로 경기전망에 대한 비관적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분기에 비해 개선세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고양시·전국 기업경기 실적추정 지수 비교



〈그림〉 고양시·전국 기업경기 실적전망 지수 비교



- 세계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는 것 또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대목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최근 미국상공회의소 연설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의 70%가 경기 하강을 경험할 것”이라며 “올바른 정책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취약한 순간(delicate moment)’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한 것은 세계 경제의 현 흐름을 매우 잘 나타내는 대목임. <주요 원인 : ‘무역 긴장과 관세 인상’, ‘금융 긴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가속’ 등> 이와 같은 지적이 당장의 경기침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순환 상 언젠가는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문제라는 점에서 ‘세계 경제의 침체’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정부가 밝힌 내년(2020년) 재정 운용 기조 가운데 △경기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역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이를테면 ‘감세·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정부의 현명한 재정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보임.
- 고양상공회의소는 고양시 기업경기전망조사 시 고양지역 경제와 관련한 조사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여 매분기별로 주제를 달리해 응답을 받고 있음. 이번 조사 간에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와 관련된 <전국 228개 지자체에 대한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 따르면 고양시는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100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양시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행정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항목을 마련, 이에 따른 응답을 받음. **조사에 응답한 고양시 기업들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합리성’(32.2%)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행정 분야로 꼽았음.** 즉 규제 내용의 합리성에 대한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두 번째로 꼽힌 ‘규제개선 의지’(30%)와도 연결시켜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임. 그 뒤를 이어 ‘행정시스템’(17.8%), ‘공무원 태도’(12.8%), ‘행정행태’(7.2%) 순으로 나타남.

Ⅲ. 제조업 경기전망

[업종별 전망]

- 2019년 2/4분기 고양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 BSI가 '77'로 전 분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며 경기 악화 전망.
- 2019년 2/4분기 제조업 업종별 전망을 살펴보면, 「식음료」(111→141), 「가구」(없음→133), 「전기」(100→108) 이상 3개 업종에서 기준치 '100'을 상회하며 해당 업종의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함. 반면 「출판 및 인쇄」(5→6), 「IT·가전」(133→33), 「고무·플라스틱」(26→43), 「목재·종이」(27→50), 「금속가공」(40→66), 「기타」(56→78), 「기계」(82→88), 「섬유·의류」(83→88), 「자동차부품」(16→88) 이상 9개 업종에서는 기준치 '100'미만을 나타내며 해당 업종의 향후 경기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함.

〈표〉 〈제조업 업종별 경기 전망 BSI〉

제조업	'14.4	'15.1	'15.2	'15.3	'15.4	'16.1	'16.2	'16.3	'16.4	'17.1	'17.2	'17.3	'17.4	'18.1	'18.2	'18.3	'18.4	'19.1	'19.2
종합	93	85	104	91	105	90	118	99	102	90	77	100	81	78	103	87	56	58	77
식음료	140	123	79	90	175	116	172	106	95	108	62	68	29	40	-	150	75	111	141
섬유·의류	60	32	-	50	-	87	115	100	114	99	107	112	88	143	191	102	38	83	88
출판 및 인쇄	85	11	12	48	67	49	64	19	69	37	54	20	56	43	58	34	51	5	6
고무·플라스틱	170	65	50	60	50	91	80	150	100	104	75	125	70	100	121	91	25	26	43
금속가공	71	125	123	-	62	-	150	-	80	-	-	25	25	66	-	-	61	40	66
기계	114	98	146	140	110	118	135	143	124	155	50	114	76	50	165	160	113	82	88
IT·가전	63	136	136	125	162	150	113	140	58	150	75	100	150	61	50	160	-	133	33
자동차부품	122	15	155	121	100	125	73	153	144	108	62	150	133	55	50	73	75	16	88
전기	-	-	-	-	-	125	80	80	126	58	-	62	95	133	47	-	44	100	108
목재·종이	-	-	-	-	-	25	40	70	100	37	41	75	50	-	-	40	100	27	50
가구	-	-	-	-	-	50	140	-	130	-	112	100	-	16	100	-	-	-	133
화장품	-	-	-	-	-	-	-	-	-	-	-	-	133	-	100	-	-	-	-
기타	-	-	-	-	-	89	121	90	102	88	94	127	89	89	108	80	50	56	78

Ⅳ. 유통업(도·소매업) 경기전망

[업종별 전망]

- 2019년 2/4분기 고양지역 도·소매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 BSI가 '65'로 전 분기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며 경기 악화 전망.
- 지난 분기 최저치(48)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꽤나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던 18년 4분기(65)의 기록과 같은 수치임. 제조업 부문과 동반 상승한 것 또한 매우 고무적이지만 18년 2분기 이래로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실물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 민간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악화된 영업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도·소매업 업종별 경기 전망 BSI〉

도/소매 업종	'144	'151	'152	'153	'154	'161	'162	'163	'164	'171	'172	'173	'174	'181	'182	'183	'184	'19.1	'19.2
도매 및 상품중개업	64	96	93	86	82	105	84	87	95	79	74	89	68	86	106	78	65	48	65
소매업, 자동차 제외	53	104	118	12	133														

V. 부문별 전망

- 2019년 2/4분기 부문별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체감경기’(69), ‘매출(내수)’(78), ‘매출(수출)’(81), ‘영업이익(내수)’(66), ‘영업이익(수출)’(73), ‘자금조달여건’(63)
- 부문별 전망에서는 6개의 조사 항목 모두에서 ‘100’을 하회하는 지수를 보이며 부정적 전망을 나타냄. 18년 2분기 이후로 ‘100’을 상회한 적이 없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최근 한국은행이 키스밸류(KISVALUE) 자료를 통해 국내 2,06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3.8%증가 → 전년 동기대비 5.3%포인트 하락)이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기업의 자본 대비 부채 비중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도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개선된 대출 환경을 이용해 비용 조달에 나서며 대출 증가율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국내 수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출 규모가 감소하며 전체 수출액이 작년 12월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오고 있고 작년 GDP성장률의 내수 기여도가 1.6포인트로 나타나며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내외적 불안요소들로 중소기업들의 재무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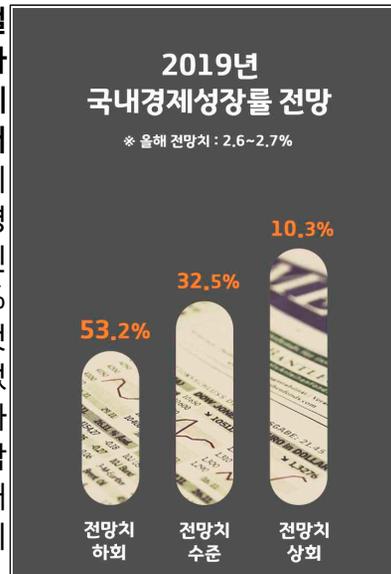
〈표〉 〈부문별 경기 전망 BSI〉

구분	14.4	'15.1	'15.2	'15.3	'15.4	'16.1	'16.2	'16.3	'16.4	'17.1	'17.2	'17.3	'17.4	'18.1	'18.2	'18.3	18.4	19.1	19.2
체감경기	91	89	102	85	94	88	88	84	102	75	65	96	73	88	112	68	58	45	69
매출액(내수)	94	100	107	87	104	97	103	91	107	93	77	100	73	85	106	80	62	49	78
매출액(수출)													85	86	110	96	69	68	81
영업이익(내수)	82	86	97	86	96	90	92	82	95	-	-	-	69	71	101	78	50	50	66
영업이익(수출)													75	89	103	82	63	64	73
자금조달여건	-	-	-	-	-	-	-	-	83	75	69	84	78	72	93	-	54	49	63

VI. 대내외적 경영여건 및 경제현안 인식

■ 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올해 국내 경제 경제성장률을 묻는 질문에서는 절반가량의 기업들이 ‘올해 전망치(2.6~2.7%)보다 하회할 것이다’(53.2%)라고 응답하며 경제전반에 걸쳐 중소기업들의 경제 불안 심리가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냄.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2019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의 둔화와 민간소비·수출 증가율의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올해 전망치 수준일 것이다’는 의견은 32.5%로 나타나며 그 뒤를 이었고 ‘전망치를 소폭 상회(2.8~2.9%)할 것이다’와 ‘3%대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는 의견은 각각 10.3%와 4%로 나타나며 조사에 응답한 기업 대부분이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전반적 투자여건

- 최근의 전반적 투자여건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소 어렵다’(51.5%), ‘매우 어렵다’(33.1%)라고 평가하며 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기타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냄. 앞서 언급된 ‘수출 감소’가 ‘생산 및 투자 등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임. 투자여건이 '다소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라고 평가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경기 불황(악화)'과 '소비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꼽음.

판촉물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물류비와 인건비, 매입원가 등이 인상된 상태에서 동종 업계에서의 경쟁이 치열하여 매출단가는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익이 아닌 손실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하며 2차적인 투자에 앞서 1차적인 이익창출마저도 힘든 구조에 대해 고충을 토로함. 한편 익명의 한 관계자는 “수출 회사인 우리의 경우 중국시장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사드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사이 중국산, 일본산 제품이 한국제품의 코드를 차지하여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한류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며 사드의 여파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힘들어 투자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냄.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제조업을 비롯한 주력산업 생산·투자·수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투자여건이 다소 양호한 편이다'(13.8%), '매우 양호한 편이다'(1.5%)라는 평가를 내놓은 기업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2분기 사업(투자)계획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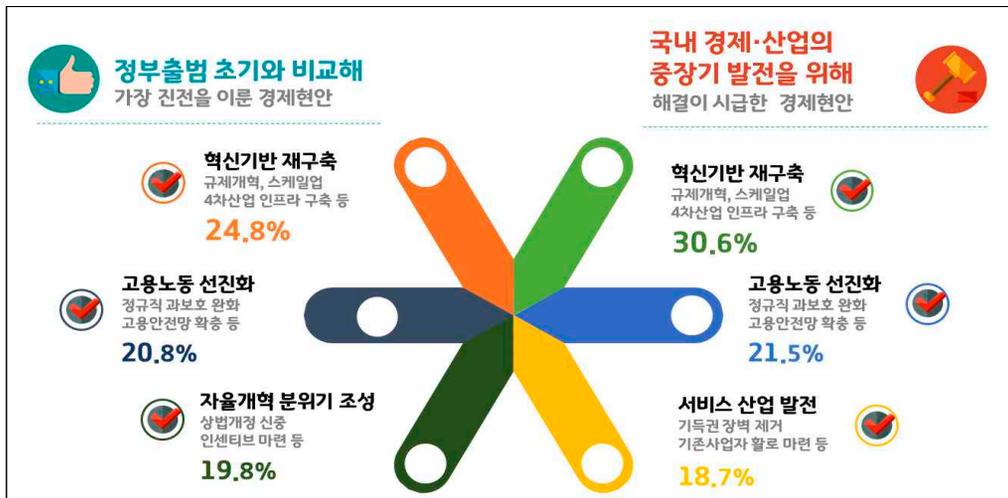
- 2019년도 2분기 사업(투자)계획의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79.2%의 기업이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힌 반면 20.8%의 기업만이 '공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힘.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공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다)의 4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지난 18년 1분기(65.6%) 조사 때보다는 13%가량 높았고 19년 1분기(83.7%) 때 보다는 4.5% 낮아진 수치임.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초에 계획한 '보수적' 사업투자 방향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임을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으로, 앞서 기업들이 투자여건을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한 것과도 연결되는 부분임.



-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에 한해 물은 ‘보수적 운영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지난 1분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 불확실성 증대’(42.2%)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음. 대내외적 경기 불안요소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 뒤를 이어 ‘기존시장 경쟁 과다’(25.5%), ‘자금조달 어려움’(14.3%), ‘고용노동환경의 변화’(8.7%), ‘신규투자처 부족’(5.6%), ‘각종 규제’(3.7%) 순으로 나타남. “기존시장의 경쟁심화로 인한 초기투자비용 상승(임대료, 보증금, 토지가격 등)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손익을 내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한 마트운영 관계자의 전언은 불확실한 경기만큼이나 기존시장의 경쟁 과다 역시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계획에 제동을 거는 주요 요인임을 잘 드러내는 대목임.

■ 정부출범 초기와 비교해 가장 진전을 이룬 경제현안

- 현 정부의 출범 초기와 비교해 가장 진전을 이룬 경제현안에 대해 기업들은 ‘혁신 기반 재구축(규제개혁, 스케일업, 4차산업 인프라 구축 등)’(24.8%)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음. ‘고용노동 선진화(정규직 과보호 완화, 고용안전망 확충 등)’(20.8%)와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상법개정 신중, 인센티브 마련 등)’(19.8%)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비율로 꼽히며 집권 초기에 비해 진전이 이루어진 경제현안이라고 평가함. 이어서 ‘인구층격에의 대응(여성, 고령층, 외국인 활용 등)’(15.8%), ‘서비스 산업 발전(기득권 장벽 제거, 기존사업자 활로 마련 등)’(13.9%), ‘교육혁신(창의성, 산업계 수요 확대 등)’(5%) 순으로 나타남.



■ 국내 경제·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문제해결이 시급한 경제현안

- 한편 국내 경제·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문제해결이 시급한 경제현안에 대해 기

업들은 앞선 문항과 동일하게 ‘혁신기반 재구축(규제개혁, 스케일업, 4차산업 인프라 구축 등)’(30.6%)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음. 그 뒤를 이어 ‘고용노동 선진화(정규직 과보호 완화, 고용안전망 확충 등)’(21.5%)가 꼽힘. 그 뒤를 이어 ‘서비스 산업 발전(기득권 장벽 제거, 기존사업자 활로 마련 등)’(18.7%), ‘인구충격에의 대응(여성, 고령층, 외국인 활용 등)’(12.9%),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상법개정 신중, 인센티브 마련 등)’(12%), ‘교육혁신(창의성, 산업계 수요 확대 등)’(4.3%) 순으로 나타남.

■ 기득권 장벽의 문제해결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경제주체

- 기득권 장벽이 규제와 서비스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경제주체를 묻은 결과 약 50%에 가까운 기업이 ‘정부’(49.2%)를 꼽음. 경제주체 가운데 그 권한과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국회’(27%)가 그 뒤를 이었고 ‘경제·시민단체’(19.8%) 또한 적지 않은 비율로 꼽힘.

하지만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 건의 16건 가운데 현시점까지 정책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절반인 8건인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경쟁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많은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속도감 있는 규제 혁파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임.

■ 고양시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행정 분야

-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 따르면 고양시는 ‘기업체감도’(5개 부문 종합평가) 부문에서 100위를 기록함. 이와 관련해 ‘고양시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기업들은 ‘규제합리성’(32.5%)과 ‘규제개선 의지’(30%)를 최우선 분야로 꼽음.

고양시는 기업체감도를 평가하는 5개 항목 가운데 규제합리성에서 153위(B(68.3점)), 규제개선 의지에서 179위(C(68점))를 각각 기록했는데, 이른바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3중 규제’(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를테면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성남시와 용인시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유치’가 현저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 역시 ‘3중 규제’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얼마나 큰지 짐작해볼 수 있음.

지난 2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주최한 고양시정포럼에서 ‘고양시 수도권 접경지

역규제 피해규모산정과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진 바 있음. 이날 포럼에서는 “남북경협시대라는 변화된 조건에 맞춰 4차 산업혁명을 명분으로 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개혁방안 추진”, “고양시가 처한 규제를 오히려 역으로 활용해 스마트팜과 같은 혁신산업 유치”, “수도권정비계획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 차원에서 국가경제 프로젝트 모델 마련”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 좋은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임.

기업들은 남은 3개 부문 가운데 ‘행정시스템’(17.8%), ‘공무원태도’(12.8%), ‘행정행태’(7.2%) 순으로 그 중요성을 꼽음.

고양시 기업체감도 (종합순위)

※ 종합등급분류 : S(75↑)-A(71~75)-B(67~71)-C(63~67)-D(63↓)

지자체 명	종합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평가	규제개선 의지
경기	100위	153위	182위	150위	174위	179위
고양시	A(71.1점)	B(68.3점)	C(67.5점)	B(68.7점)	B(71.1점)	C(68점)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 첨 부 #1

〈 부문별 BSI 변화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III		IV		I		II		III		IV		I		II									
	제조	도소매	제조	도소매	제조	도소매	제조	도소매	제조	도소매	제조	도소매	제조	도소매	제조	도소매								
총 합	93	79	100	84	90	71	70	71	91	78	73	62	72	69	70	69	69	69	58	55	55	56	48	52
	(99)	(87)	(102)	(95)	(90)	(79)	(77)	(74)	(100)	(89)	(81)	(68)	(78)	(86)	(103)	(106)	(87)	(78)	(56)	(65)	(58)	(48)	(77)	(65)
채감경기	82	67	96	74	88	58	62	55	85	70	74	55	58	69	73	57	63	78	55	37	42	52	40	40
	(95)	(72)	(105)	(100)	(86)	(66)	(66)	(62)	(105)	(80)	(80)	(64)	(84)	(92)	(113)	(112)	(67)	(76)	(54)	(66)	(46)	(45)	(78)	(56)
매 출 액 (내 수)	-	-	-	-	-	-	-	-	-	-	74	57	66	90	70	62	64	60	56	56	49	50	50	44
	-	-	-	-	-	-	-	-	-	-	(80)	(64)	(79)	(93)	(102)	(112)	(91)	(76)	(62)	(64)	(54)	(41)	(82)	(73)
매 출 액 (수 출)	-	-	-	-	-	-	-	-	-	77	68	84	80	73	80	85	84	71	62	66	83	57	62	
	-	-	-	-	-	-	-	-	-	(92)	(75)	(80)	(94)	(108)	(112)	(105)	(84)	(69)	(62)	(72)	(63)	(87)	(73)	
영업이익 (내 수)	86	51	91	74	-	-	-	-	-	-	63	48	79	64	61	58	60	58	43	49	50	47	43	44
	(93)	(69)	(96)	(89)	-	-	-	-	-	-	(78)	(56)	(66)	(76)	(95)	(109)	(84)	(76)	(50)	(50)	(56)	(38)	(66)	(65)
영업이익 (수 출)	-	-	-	-	-	-	-	-	-	-	71	75	81	60	75	92	74	67	68	65	64	71	50	64
	-	-	-	-	-	-	-	-	-	-	(78)	(71)	(85)	(95)	(105)	(100)	(88)	(77)	(63)	(55)	(69)	(58)	(79)	(66)
설비투자	104	97	106	100	88	90	84	92	103	100	-	-	-	-	-	-	-	-	-	-	-	-	-	-
	(97)	(107)	(116)	(108)	(96)	(94)	(91)	(100)	(98)	(106)	-	-	-	-	-	-	-	-	-	-	-	-	-	-
자금사정	-	-	-	-	77	69	68	67	87	73	78	66	65	52	66	66	-	-	54	61	61	36	50	57
	-	-	-	-	(78)	(72)	(68)	(70)	(88)	(82)	(78)	(79)	(75)	(69)	(95)	(90)	-	-	(54)	(52)	(53)	(41)	(69)	(54)

주 : ()내는 전망치

※ 첨 부 #2

〈 분기별 고양시 경제 이슈 관련 조사 (종합) 〉

[18년도 2분기] 「고양시정 차원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수출(무역)지원 정책」

영세수출기업 지원 (수출보험증명발급지원 등) (37%)	전략 수출품목 개발 지원 (19%)	해외마케팅 촉진 지원 (19%)
수출지원 전담행정조직 신설 (13%)	국가별·품목별 해외시장조사 대행 (7%)	기타 (6%)

[18년도 1분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가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우선 시행해야 할 지원 사업」

입주자금 지원 (30%)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22%)	토지비 인하 및 지원 (22%)
신속한 인·허가 및 기타행정지원 (16%)	외투기업 포함 세제 지원(법인세 등) (8%)	기타 (2%)

[17년도 4분기] ① 「고양상공회의소를 통해 무역증명(C/O 및 FTA)을 발급받은 이력 여부」

발급받은 적이 있다 (38%)	발급받은 적이 없다 (62%)
------------------	------------------

[17년도 4분기] ② 「현재 활용 중인 FTA협정」

한-아세안 FTA (21%)	한-중 FTA (13%)	기타 (11%)
한-미 FTA (6%)	한-EU FTA (5%)	한-인도 FTA (5%)

(해당사항 없음 : 40%)

[17년도 3분기] 「고양시 내 일자리 기관을 통한 인력채용 경험 여부」

해당사항 없음 (61%)	고양상공회의소 일자리센터 (20%)	기타 (9%)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6%)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4%)

[17년도 2분기] ① 「고양시가 추진 중인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도」

들어본 적이 있다 (39%)	모르겠다 (39%)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0%)	잘 알고 있다 (2%)

[17년도 2분기] ②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사업가운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최우선 현안」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52%)	한류월드 조성 (19%)	고양U+IoT융복합 실증단지 조성 (11%)
고양청년 스마트타운 조성 (9%)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6%)	방송·영상 문화콘텐츠밸리 조성 (2%)

[17년도 1분기] 「경기북부테크노밸리에 유치해야할 IT산업 중 우선적인 핵심 분야」

자동차, 드론 등 타 산업과의 IT융합 (24%)	ICT(정보통신기술) (20%)	AI(인공지능)(18%)
S/W(소프트웨어) (13%)	IoT(사물인터넷) (13%)	VR·AR(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기타 (12%)

[16년도 4분기] 「고양시에 유치 확정된 경기북부테크노밸리에 우선적으로 입주되어야 할 산업분야」

IT산업 (41%)	첨단의료 산업 (14%)	방송·영상 산업 (13%)
관광·MICE 산업 (12%)	BIO 산업 (12%)	항공(드론)·우주산업 (5%)

[16년도 3분기] ① “2016 국제 로타리 세계대회”에 대한 인식도

들어본 적이 있다 (40%)	모르겠다 (2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1%)	잘 알고 있다 (11%)

[16년도 3분기] ② “2016 국제 로타리 세계대회”가 고양시 지역경제 관련 도움이 된 분야

고양시 도시 브랜드 제고 (32%)	별 도움이 없었다 (31%)	지역·문화 관광분야 특수 (22%)
	상품판매·음식·숙박업특수 (6%)	고용(일자리) 창출 (5%)

[16년도 2분기] 「부채 제로도시 달성에 따른 재정여력이 우선투자 되어야 할 분야」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48%)	여성·아동·청소년 정책 지원 (24%)	일자리 창출 (18%)
	교통·주택 여건 개선 (6%)	교육·문화 및 시민복지 강화 (4%)

[16년도 1분기]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고양시 미래경제가 추구해야 할 과제」

지역 특화산업 관련 클러스터 조성 (53%)	해외 교류채널 활용 (14%)	대학-시/정부-기업 간 트리플 네트워킹 (12%)
	빅 데이터 활용 (9%)	학계-산업계간 정례적 네트워크 구축 (6%)

[15년도 4분기] 「고양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상권 활성화 (29%)	관광인프라 강화 (25%)	고양시 이미지제고 (23%)
	축제·공연문화 발전 (16%)	일자리 창출 (7%)

[15년도 3분기]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제안의견 중 우선 추진 경제 현안」

도시 마케팅을 통한 고양시 정체성 확립 (38%)	일산/덕양, 도시/비도시 간 상생 (29%)	남북교류 물류단지 조성 (14%)
자연 친화형 테마마을 조성 (9%)	고양시 특화거리 조성 (8%)	경의선·교외선 지하화 (2%)

[15년도 2분기] 「한국폴리텍대학 고양캠퍼스 유치시 희망 개설학과」

기타 제조관련 학과 (34%)	물류·유통 관련 학과 (29%)	IT/SW 서비스 관련 학과 (17%)
방송·영상·통신 관련 학과 (8%)	자동차 관련 학과 (8%)	MICE 관련 학과 (4%)

[15년도 1분기] 「고양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미래 산업 우선정책」

전시·회의 산업 (26%)	방송·영상·통신 산업 (25%)	IT 산업 (22%)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 (9%)	의료·관광 산업 (5%)

[14년도 4분기] 「‘100만 고양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일자리 창출 (45%)	일산/덕양, 구도심/신도시간 균형발전 (20%)	신 한류 국제 문화예술도시 지향 (14%)
	출·퇴근길 교통대책 마련 (11%)	부채 제로도시 달성 (10%)

[14년도 3분기]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고양시의 명소」

킨텍스 (36%)	웨스트돔 및 라페스타 상권 (18%)	호수공원 (8%)
-----------	----------------------	-----------

2019년 2/4분기 고양시 지역 기업경기전망 조사표

조사기관 : 고양상공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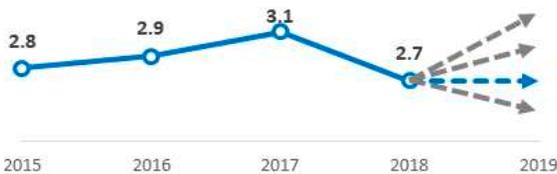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주 업종	<input type="checkbox"/> IT·가전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부품	<input type="checkbox"/> 기계	<input type="checkbox"/> 철강	<input type="checkbox"/> 정유·석유화학	<input type="checkbox"/> 섬유·의류
	<input type="checkbox"/> 조선·부품	<input type="checkbox"/> 화장품	<input type="checkbox"/> 식음료	<input type="checkbox"/> 목재·종이	<input type="checkbox"/> 출판·인쇄	<input type="checkbox"/> 고무·플라스틱
	<input type="checkbox"/> 비철금속	<input type="checkbox"/> 유리·시멘트	<input type="checkbox"/> 금속가공	<input type="checkbox"/> 전기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업종 분류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소매유통업	수출비중	<input type="checkbox"/> 수출기업(50%이상)	<input type="checkbox"/> 내수기업(50%미만)	
작성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내용은 조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 전반적인 경제상황과는 상관없이 오직 귀 회사의 입장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 목	2018년 4/4분기 대비 2019년 1/4분기 실적	2019년 1/4분기 대비 2019년 2/4분기 전망
1. 귀사의 체감경기	① 호전 ② 불변 ③ 악화	① 호전 ② 불변 ③ 악화
2. 매출액 (내수)	① 증가 ② 불변 ③ 감소	① 증가 ② 불변 ③ 감소
3. 매출액 (수출)	① 증가 ② 불변 ③ 감소	① 증가 ② 불변 ③ 감소
4. 영업이익 (내수)	① 증가 ② 불변 ③ 감소	① 증가 ② 불변 ③ 감소
5. 영업이익 (수출)	① 증가 ② 불변 ③ 감소	① 증가 ② 불변 ③ 감소
6. 자금 조달여건	① 호전 ② 불변 ③ 악화	① 호전 ② 불변 ③ 악화

7. 작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7%, 올해 전망치는 2.6~2.7% 입니다.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① 3%대 성장
- ② 전망치 소폭 상회 (2.8~2.9%)
- ③ 전망치 수준 (2.6~2.7%)
- ④ 전망치 하회

8. 최근 귀사의 전반적인 투자여건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어렵다
- ② 다소 어렵다
- ③ 다소 양호하다
- ④ 매우 양호하다

8.1. 위와 같이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9. 올해 2분기 사업(투자)계획의 방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공격적
- ② 보수적

9.1. (9번에서 '② 보수적'에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기존시장 경쟁 과다
- ② 신규투자처 부족
- ③ 경기 불확실성 증대
- ④ 자금조달 어려움
- ⑤ 고용노동환경의 변화
- ⑥ 각종 규제

10. 다음 경제현안 중 정부출범 초기와 비교해 가장 진전을 이룬 현안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10.1. 우리 경제·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문제해결이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혁신기반 재구축	· 규제개혁, 스케일업 · 4차산업 인프라 구축 등	④ 자율개혁 분위기 조성	· 상법개정 신중 · 인센티브 마련 등
② 서비스산업 발전	· 기득권 장벽 제거 · 기존사업자 활로 마련 등	⑤ 인구충격에의 대응	· 여성, 고령층, 외국인 활용 등
③ 고용노동 선진화	· 정규직 과보호 완화 · 고용안전망 확충 등	⑥ 교육혁신	· 창의성, 산업계 수요 확대 등

11. 기득권 장벽이 규제와 서비스산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경제주체는 누구입니까?

- ① 국회
- ② 정부
- ③ 신규사업자
- ④ 경제·시민단체
- ⑤ 학계

12. 전국 228개 지자체에 대한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 따르면 고양시는 '기업체감도' 부문에서 100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양시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행정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 ① 규제합리성
- ② 행정시스템
- ③ 행정행태
- ④ 공무원태도
- ⑤ 규제개선외지

- 화신방법 : 팩스 또는 메일 (FAX : 031-969-5877, e-mail : choiduddns21@korham.net) /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

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지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양상공회의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1 라페스타 A동 4층
Tel. 031-969-5817~8 / Fax. 031-969-5877